

080722 주일설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Luke) 12:32-40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친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아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묘안을 낸 목사님은 어린 아들에게 말했어오.

“할아버지 옆에 있다가 조시면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주마.” 아들은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도 깨우지 않는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1,000원씩 준다는데도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 왈,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참 여러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게 도대체 뭡니까? 깨어있다는 건 예배시간에 단순히 졸지 않거나, 혹은 아예 잠을 자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배시간에 졸지 않는 분들은 많지만, 아예 안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구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사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 잔치의 비유같이,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상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두번 하셨어요. 한번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룩한 순간에, 당시 베드로의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주님 이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요?’ 라고 묻는 장면을 봐요. 무슨 소리가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삶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신경쓰지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인거죠!

또 한번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거짓임이 들어나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혹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제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늘 준비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임하시는 것은 도적이 몰래 임하는 것같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구체적으로 35절에 보니까,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말씀에서 허리에 띠를 띠다[페리]+[죤뉘미]합성어. [페리] 본래적 의미로는 주위에, 가까이, [죤뉘미] 둘러 묶다, 즐라매다, 각오하다. 각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뜻이 “해야 할 일이나 닦쳐올 일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는 것” 이래요. 주님께서 오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을 작정해야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각오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남들이 휴일이라고 여기는 주일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좋은 여름이니깐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가서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한 것도 부족해서 교회에서 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일들을 하시죠. 일삼아서 예배하구요, 일삼아서 기도해요. 일삼아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에 치이게 되고 사람에게 치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재림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인데, 그보다는 예배 자체가 빨리 해치워 버려야 할 일이 되어 버려요. 그곳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보면 주를 기다리는 길은, 헌신 봉사에 힘쓰는 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과,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 즉, 헌신 봉사하는 일은 따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주님의 오심을 늘 염두하며 일을 하구요, 주님을 재림을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원하시는 일 즉, 헌신과 봉사를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 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주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더디 오리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에 반하는 행위, 즉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구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재를 결여하는 행위', 즉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육적인 것에만 빠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죠.

한번은 무디 목사님이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뛰어난 영국의 성경 주석가 캠벨 물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요 전도자인 R. A.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윌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재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말했어요. “잠들어 있는 세상을 생각하니 내 속에서부터 죄인에 대한 사랑이 끓어 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중국에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에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장로교의 강력한 전도자 윌버 채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의 사실이 나의 사역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이와 같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각성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첫번째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은 띠를 띠는 것(재림을 곁오하며 기다리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의 등불을 태우고 있으라!(비주다, 소모하다, 소진하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들여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확실한지 오늘 이 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문제로만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어떻게든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결국 “그 때” 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제이고,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공간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살라고 당부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를 염두해 두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염두해 두고,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그 공간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같이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소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변이 아닌, 주님을 늘 언제나 바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인내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때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과 헌신과 수고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띠를 띠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헌신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하루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